

보도시점

배포 후 즉시

배포

2026. 9. 8.(화)

대미투자 프로젝트 첫 투자금 송금 규모·시기, 원전 투자 한미간 협력 관련 구체적 사항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< 보도 내용 >

- 2026.9.8. 한겨레 「대미투자 이달 말 첫 송금... 미 웨스팅하우스 지분도 매입」 제하 기사에서,
 - “정부는 오는 18일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29~30일 첫 투자금을 미국에 보낼 계획”이며, “올해 22억달러+ 알파(a) 규모의 투자금을 조달해 미국에 송금할 것으로 알려졌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 - 또한, “대미 투자 펀드 투자처는 △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(233억달러), △미국 내 원전 8기 건설 위한 원전 프로젝트 프레임워크(1,200억달러), △알래스카 LNG 프로젝트(670억달러) 등 크게 세가지로 좁혀진 상태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 - 이와 함께 “정부는 한국전력·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포괄적 협력체계를 담은 프레임워크 서명을 준비”하고 있으며, “이 프레임워크에는 한국측이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 입장 >

- 대미투자 관련, 구체적인 투자처와 발표 시점, 첫 투자금 송금 규모 및 시기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.
- 또한, 韓·美 양국은 원전 투자 협력 관련하여 다양한 협의를 진행중이나,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
- 韓·美 간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,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산업통상부 한미통상협력과	책임자	과 장 송지현 (044-203-5170)
		담당자	사무관 유영석 (yooyseok@korea.kr)
	산업통상부 원전수출진흥과	책임자	과 장 이상은 (044-203-5330)
		담당자	사무관 박환준 (hjbak8533@korea.kr)
	재정경제부 전략투자지원과	책임자	과 장 유예림 (044-215-4950)
		담당자	사무관 안경우 (gomee@korea.kr)